

축산단체가 가야 할 방향



서 기 원 / 농협대학 교수

1. 머리말

지금 우리의 축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보니 60~70년대의 축산업은 연도별로 다소 기복은 있었다 할 지라도 차라리 호황기였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때로는 소, 젖소, 계란 등이 황금의 오리알로 여겨진 때도 있었으니 말이다.

국민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자 식량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였고 특히 축산물은 수요성장이 높은 식품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에 따라 축산농가의 규모가 커지는가 하면 사육기술도 크게 향상되었고 사료산업도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

정은 크게 달라졌다. 그간에 축적된 사육기술의 발전과 축산경영능력의 향상은 축산물의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가격은 주기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그에 더하여 축산물 수입자유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때문에 축산업계는 이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축산농가를 회원으로 구성된 축산단체 역시 그러한 변화에 따라 같이 웃고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70년대 말까지 축산물공급이 부족하여 가격 역시 안정적이었던 시대의 축산단체는 큰 무리없이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

식으로는 존재해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활동범위와 역할이 커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싫던 좋던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된 축산업체가 그에 유효하게 대응해 나가려면 축산단체들이 종래와 같은 회원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외에도 활동영역을 정치적, 사회적 분야까지 확대해야 하며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축산업의 실상을 조명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세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의 축산단체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더욱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2. 축산단체의 실태와 기능

축산단체는 한결같이 이익(利益)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축협으로서 이는 축산농가의 경제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의 수행이 중심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협회로서, 이는 구성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심기능이다.

협회는 축산의 종류에 따라 양계, 양돈, 낙농, 육우, 양봉, 유가공 등으로 나누어 조직되어 있지만 그들의 기능은 어느 것이나 동일하다. 또 협동조합은 그 중심기능이 경제적 활동의 조장에 있다 해도 사회적, 정치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협회도 그들 본래의 기능외에 경제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축산단체들은 기능수행면에서 공유(共有)의 영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조직의 목적과 운영면에서 엄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축산농가의 권익증진과 이익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면에서만 일치할 뿐이다. 그리고 양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서로 경쟁관계나 상충에 있지 않다. 도리어 그들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축협이 못하는 일을 협회가 하고 협회가 못하는 일을 축협이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들 축산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축산물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축산단체들은 공급의 시기적 조절을 기해 나가야 한다. 사육수수를 조절하거나 저장, 보관기능을 수행하여 공급시기를 조절하면 축산물의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둘째,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반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선전, 광고, 신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잠재된 수요를 개발해내는 일이야말로 축산단체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내야 할 일이다.

**축산단체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명실공히 권익단체로서의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한다.
무릇 이익단체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높이고 요구할 것은
제때에 해야 할뿐만 아니라
일단 요구한 사항은
관철시키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축산단체는 새로운 축산기술을 끊임없이 도입, 보급함으로써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기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하다면 연구개발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임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축산단체가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축산업은 발전도 국제화에의 대응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축산단체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명실공히 권익단체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內實)을 기해 나가야 한다. 무릇 이익단체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높이고 요구할 것은 제때에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요구한 사항은 관철시키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회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들이 지엽적인 것에 한하고, 그에 안주(安住)해서는 자칫 존립의의가 상실되기 쉽다.

다섯째, 축산단체는 축산농가에 불리하기 쉬운 입법이 추진될 때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축산물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이를 지지(支持)할 수 있도록 축산당국에 강력히 요구도 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축산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중심기능인 정치적 기능이란 것이다. 축산단체가 아무리 그들

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정책 하나가 잘못 추진되었을 때 양축농가가 입는 손실에 비하면 그것은 언제나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83~'84년의 소값 폭락파동에서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여섯째,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최근 미국이 우리에게 또다시 쇠고기 수입을 자유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정부도 절대로 자유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지만 이대로 안심하기엔 이르다. 언제 또 압력을 가중시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축산단체들이 항상 이에 대비하여 조직의 힘을 기르고 한편으로는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부 지도체제도 정비해야 한다.

끝으로 축산단체는 사료산업에의 직접참여와 축산물 가공산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료산업이 주로 재벌기업, 대기업에 의해서 영위되는 한 축산물의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또 축산물의 가공도 축산단체에 의하여 다수 영위되어야 한다.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가공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양축농가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3. 축산단체에 부과된 새로운 과제

이상에서 열거한 기능 이외에 축산단체에는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있음이 깊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민주화, 자율화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단체는 구성원 농민의 욕구가 그 안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그들을 조직속에 굳건하게 결집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축산단체의 경영자가 선거로 뽑혔다고 해서 민주화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축산농가의 권익이 지켜지고 대변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와 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주화인 것이다.

둘째, 앞서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시키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의 소비자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급식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값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일본에 가보니까 쇠고기의 경우 일본쇠고기는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높은 값을 받고 있었다. 가장 유명한 쇠고기는 일본소와 젓소를 교잡(交雜)시켜 육질을 개선시켰다는 「마쓰사카」쇠고기인데 이는 근당(600g) 우리나라 돈으로 8만5천원에 소매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중 일등육은 1만8천원 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품질이 같을 때 가격을 비교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품질이 다르면 가격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 쇠고기의 일등육과 일본 쇠고기의 일등육간에는 가격차가

4~5배가 나는데도 일본 쇠고기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노력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하며 이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축산단체인 것이다.

셋째, 수입개방압력을 저지하는데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逆)으로 수출하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축산물은 어느 것이나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나라 과일 중 배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점이나 오이나 배추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값이 싸서가 아니라 품질의 우수성 때문이다.

축산물도 돼지고기의 경우 일본은 지난해에 외국에서 42만톤을 수입하였는데 그중 52%가 대만에서, 40%가 덴마크에서 수입되었다. 우리나라는 겨우 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한데 우리가 좀더 노력하기만 한다면 돼지고기의 대일(對日)수출은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대만이나 덴마크의 양돈도 사료를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라고 해서 경쟁이 안될 턱이 없다.

또 미국은 닭고기의 경우 많은 양을 구라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기를 수 있

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닭고기의 대미수출이 막혀있는 것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위생지역(yellow zone)으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수출의 길을 여는 역할은 누가 해야 하는가. 이로 역시 축산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인 것이다.

넷째, 축산물 수입자유화 추세에 대응해서 축산단체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이다. 수입축산물이 함유하고 있는 성장호르몬이나 방부제의 유해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일이야말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난 4월 8일에 발표된 농축수산물의 수입자유화예시품목 243개 중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축산업계가 방심하고 있을 일은 못된다. 돼지고기의 내장이나 설육(脬肉)이 풀린 이상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감소는 필연적이며 오리고기, 칠면조고기가 풀리게 되어 있는 이상 닭고기의 소비감소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상에 대응하여 각각의 축산단체는 그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섯째, 국내적으로는 대기업, 재벌기업들의 축산업과 그 가공산업에의 진출을 억제하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수많은 부업적 양축농가를 보호해 나가려면 축산단체는 기업적 축산이나 축산물 가공분야에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백만이 넘는 축산농가의 권익을 진정 축산단체가 지키려 한다면 대기업의 축산업에 지나치게 진출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할 것이다.

축산단체의 경영자가

선거로 뽑혔다고 해서

민주화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축산농가의 권익이 지켜지고 대변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와 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주화인 것이다.

4. 맺는말

거듭 말하지만 축산단체들이 진정 우리의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의 유지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축산단체들은 널리

홍보해야 한다.

또 선진국의 축산업조차 막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보호정책하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낱알이 밝혀 이를 국민일반에게는 물론 정책입안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 점에서 축산단체들은 선진외국의 축산정책이나 축산업보호정책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외조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축산농가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강력

한 집단 의사표시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눈치만 살피거나 아니면 몇몇 단체에서 보는 것처럼 자체의 경영실적지양에만 급급한다면 우리의 축산업과 축산농가는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그에 따라 축산단체도 자연소멸되는 위기를 맞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축산단체들이여 힘을 내라. **65년**

一石二鳥

류코싸이토준병, 콕시듦증예방·치료제

스테노롤®

(HALOFUGINONE)

■ 특 징

1. 콕시듦원충에 대해 소아체 제1대 번식체, 제2대 번식체에 세번 연속살충 작용으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살충작용을 발휘합니다.
2. 콕시듦증을 예방하는 3ppm의 농도로 류코싸이토준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스테노롤은 다른 항콕시듦제와는 달리 생약성분에서 합성해낸 제제이므로 내성 및 부작용이 없으므로 가장 안전한 제제입니다.
4. 다른 항콕시듦제보다 증체량, 사료효율 개선효과가 우수합니다.
5. 조직에서 계분으로 신속히 배출되기 때문에 육류에 잔류가 없습니다.
6. Rotation Program을 적용할 때 더욱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조판매원



한 풍 산 업 주 식 회 사

HAN POONG INDUSTRY CO., LTD.

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 195-42

☎ (서울) 845-1171/3·(안양) 2-5834/5551

원료공급 및 기술제휴

ROUSSEL-UCLAF

France

※ 상세한 문헌이 필요하신 분은 상기주소로 연락 바랍니다.